

5. 거주자 외화예금 변동요인 및 최근의 감소배경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 이종찬·전정호)

1. 거주자 외화예금은 2022년말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교역 규모 확대, 정책당국의 거시건전성 강화 노력 등으로 2010년말 233억달러에서 2022년말 1,110억달러로 크게 증가하며 국내은행의 중요한 외화조달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2023년 들어 감소세를 지속하여 2024.4월말 현재 914억달러로 줄었다.

2. 거주자 외화예금의 장기 변동은 수출입 등 대외거래 규모와, 단기의 일시적 변동은 환율 및 불확실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출입, 해외투자 등 대외거래가 확대되면서 지급결제를 위한 외화예금의 보유규모도 장기적으로 증가하였다(거래적 요인). 또한 기업들은 현재의 환율 수준이 과도하게 낮아 환율 상승이 예상되거나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향후 환차손 및 지급결제 실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예비적으로 외화예금 규모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예비적 요인).

3. 2023년 이후 거주자 외화예금이 감소세를 나타낸 데에는 2022년중 크게 증가했던 예비적 수요의 축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022년 하반기중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가속화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경상수지 악화 등 국내 리스크 요인이 가세하면서 기업의 불확실성 대비를 위한 외화예금 보유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환율변동성¹⁾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등 수출입 기업들의 불안심리가 완화됨에 따라 예비적 목적의 외화예금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예비적 요인). 또한 대외거래의 축소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다른 거래에 비해 지급결제 규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수입의 회복세가 더딘 것이 외화예금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거래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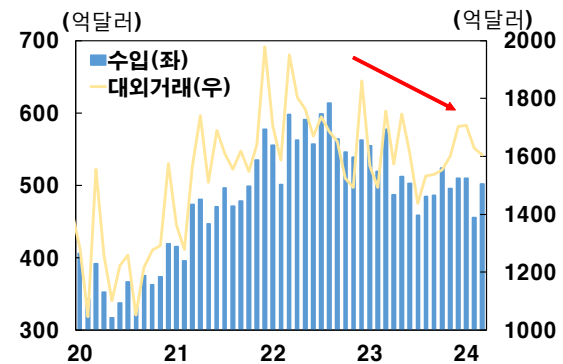
4. 다만, 이와 같은 감소세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감소세가 2022년 하반기의 일시적 급증 부분이 되돌려진 측면이 있고 향후 대외거래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외화예금 감소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기업외화예금원/달러 변동성¹⁾>



주: 1) 원/달러 옵션 내재변동성(1m)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대외거래¹⁾ 규모>



주: 1) 수출, 수입, 금융거래의 총액기준 합계
자료: ECOS

1) 원/달러 옵션 내재변동성을 의미하며 환율 수준이 높더라도 불확실성이 크지 않은 경우 환율변동성은 낮을 수 있다.